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뉴스 '코로나19' 시대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캠페인 전개

산업·경제 중소상공인 등을 위해 자택 앞 영업 임시허가

사회·복지

'아트마스크'로 즐기면서 '코로나19' 극복 유도
'코로나19' 치료병상 정보 실시간 공개 및 진단검사 접근성 제고

공공진료소 확대 등 동물복지시스템 구축

환경·안전

'음식 폐기물 줄이기' 대책 추진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 | | | | | |
|--------|-----|-------|-----|------|-----|
| 암스테르담 | 장한빛 | 시카고 | 김영준 | 뉴델리 | 박원빈 |
| 베를린 | 신희완 | | 강기향 | | 박효택 |
| | 유진경 | 하와이 | 임지연 | 자카르타 | 박재현 |
| | 홍남명 | 휴스턴 | 이경선 | 도쿄 | 박재호 |
| 프랑크푸르트 | 이은희 | 상파울루 | 김현아 | 오사카 | 권용수 |
| 하노버 | 이희재 | 스톡홀름 | 문선우 | 베이징 | 박성은 |
| 쿠알라룸푸르 | 홍성아 | | 허윤희 | 상하이 | 문혜정 |
| 뉴욕 | 윤규근 | 바르셀로나 | 진광선 | 에드먼턴 | 장지훈 |
| | 이수진 | | 박정수 | 토론토 | 고한나 |
| | 이정근 | 싱가포르 | 이은주 | | 김용훈 |
| 로스앤젤레스 | 최윤경 | 런던 | 정기성 | 보르도 | 김준광 |
| 샌프란시스코 | 김민희 | 비엔나 | 안병선 | 파리 | 김나래 |
| 시애틀 | 강민규 | 로마 | 서동화 | 시드니 | 정용문 |
| | | 피렌체 | 김예름 | | |

‘코로나19’ 시대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캠페인 전개

일본 교토市 / 사회·복지

교토市는 ‘코로나19’ 시대에 확실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에 기초해 부당한 차별, 집단 괴롭힘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캠페인을 전개. 장애로 마스크 착용 등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로 인해 새로운 불편이 생기는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요청

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본에서는 확진자와 그 가족, 의료 종사자와 그 가족, 해외에서 들어온 일본인이나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한 비방글이 SNS에서 퍼지고 있음
- 교토市는 확실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에 기초해 부당한 차별, 편견, 집단 괴롭힘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에 따른 신중한 행동을 요청하는 캠페인을 전개

주요 내용

- ‘새로운 생활스타일’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존재
 - 市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새로운 생활스타일’ 보급을 촉진 중
 - 그런데 장애인 중에는 마스크 착용 등 새로운 생활스타일을 실천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고, 이로 인해 새로운 불편이 생기는 사람도 있음
 - 장애가 있는 사람 중에는 헬프 마크¹⁾(아래 그림 참조)나 ‘마스크를 쓸 수 없습니다’와 같은 카드를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이 있음



1) 헬프 마크는 난치병이나 장애, 의족이나 인공관절, 임신 초기 등 외견상 장애 여부 등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나타내는 마크로, 구청 등에서 배포

- 市는 장애 특성별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요청
 - 예컨대,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 중에는 촉각 등이 예민해 마스크가 피부에 닿는 것을 참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해 거리두기를 못하는 경우, 지금까지 하지 않은 일을 함으로써 그동안 평범하게 해온 일까지 할 수 없게 된 경우도 있음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되도록 부드러운 어조로 천천히 말을 걸고, 이와 같은 사정으로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등을 할 수 없다면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
 -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은 안내자가 없으면 QR 코드 활용이나 체온 측정, 거리두기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상품 구매 시 손으로 상품을 확인하길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점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
 -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면 입술의 움직임을 알 수 없어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데, 필담(筆談) 가능 여부를 표시하는 마크를 활용하는 등 배려가 필요
- 市는 이를 위해 홍보 포스터 ‘힘내자, 인간. 지키자, 인권’(頑張ろう、人間。守ろう、人権。)을 제작해 배포
 - 코로나19 관련해 차별 금지와 인권 존중 및 배려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담음

<https://www.city.kyoto.lg.jp/bunshi/page/0000265358.html>

<https://www.city.kyoto.lg.jp/hokenfukushi/page/0000273165.html>

<https://www.youtube.com/watch?v=RxF2c3HJWJo>

권용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중소상공인 등을 위해 자택 앞 영업 임시허가

말레이시아 슬랑고르주 / 산업·경제

말레이시아 슬랑고르주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 등 주민들을 위해 자택 앞에서 영업할 수 있는 임시허가증을 발급.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인 등의 영업활동 및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

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의 확산세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중소기업인 증가
 - 올해 말레이시아 소매업은 1998년 아시아 경제 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
 - 말레이시아에서는 3월 18일부터 필수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을 폐쇄하는 이동제한령(MCO)을 시행한 후 5월부터 단계적으로 봉쇄 완화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침체로 재고비용,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인 증가
- 중소기업인의 전기·가스요금 및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정책의 필요성 대두
 - 이에 슬랑고르주는 자택 앞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증을 발급해주시기로 결정

주요 내용

- 중소기업인을 위한 효과적인 단기 지원체제 구축
 - 자택 앞에서 영업하기를 원하는 주민은 거주지 관할 행정기관에서 임시허가증 발급 신청 가능
 - 임시허가증 유효기간은 최대 1년이지만, 1년 이후에도 영업을 원하는 경우 자택 앞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영업하는 것을 허가
- 위생과 청결을 강조한 지원방안 시행
 - 임시허가증을 발급받게 되면 3개월 단위로 갱신 가능
 - 임시허가증 발급 및 갱신을 위해서는 장티푸스 예방접종과 위생기준 준수 등의 조건 충족이 필수
 - 식탁과 의자를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며, 포장만 허용

정책의 의의

- 임대료와 인테리어비용 등 매장 운영비가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 등의 영업활동 및 매출 증대에 기여
- 또한 매장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초기 창업자들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
- 임시허가증 발급 및 갱신 조건으로 포장만 허용하고 위생을 최우선시하는 조치로 안전성 확보

<https://www.nst.com.my/news/nation/2020/09/625025/selangor-issue-temporary-licences-front-home-traders>

홍성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

‘아트마스크’로 즐기면서 ‘코로나19’ 극복 유도

일본 교토市 / 사회·복지

교토市는 ‘코로나19’ 시대에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고, 교토의 문화예술이나 관광명소, 전통기술 등을 알릴 수 있도록 ‘SNS로 발신! 교토 아트마스크’ 캠페인을 전개.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그림이나 교토의 유명 관광지 등을 프린트한 마스크, 교토의 전통적인 기술을 이용한 마스크 등을 市 공식 SNS에 올리도록 함

배경 및 목적

- 일상 곳곳에서 ‘코로나19’가 확산 중
 - 교토에서는 올해 7월 이후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집단감염도 다수 발생
 - 올해 상반기와는 달리 유흥업소나 노래방에서의 감염과 젊은 층의 감염이 늘어나고 있고, 가정 내 감염 등으로 고령층 감염도 증가
 - 市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증가해 그 비율이 누적 확진자의 40%에 육박
 - 市 코로나19 감염방지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거나 알고도 준수하지 않는 시민들도 적지 않음
-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사업자·의료기관·복지관계자 등 모두가 하나가 되어 감염 확산 방지에 적극 임하는 것이 필요
 - 이를 위해 市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고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9월을 ‘교토市 코로나 감염 방지 철저 월간’(京都市コロナ感染防止徹底月間)으로 정하고, 감염방지대책을 집중 시행
 - 이를 통해 ‘위드(with) 코로나 사회’에 필요한 시민행동을 정착시키고,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는 분위기를 형성
- 이와 관련해 市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면서 교토의 문화예술이나 전통산업을 알리고,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즐거운 마음으로 지낼 수 있도록 ‘SNS로 발신! 교토 아트마스크’ 캠페인을 시행

주요 내용

- 市는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그림이나 교토의 유명 관광지 등을 프린트한 마스크나 교토의 전통적인 기술을 이용한 마스크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녹아들어 있는 마스크를 ‘아트마스크’로 부름
- 市는 아트마스크를 사용하는 시민이나 사업자 등이 市 공식 SNS에 아트마스크 사진이나 영상을 올릴 때 해시태그(#)를 달고 「#교토 #감염 방지 #아트마스트」를 기재하도록 함
 - 예를 들면, ‘니시진오리(西陣織) 기술을 이용한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와 같은 글과 함께 아트마스크 착용 사진 등을 올리고, ‘#교토 #감염 방지 #아트마스트 #니시진오리 #전통산업’을 기재



[사진 1] 교토市 동물원 모습을 담은 ‘아트마스크’



[사진 2] 전통기술을 이용한 ‘아트마스크’

- 이 캠페인은 코로나19 시대 필수품이 된 마스크를 활용해 교토의 문화예술이나 전통 산업을 알리고, 감염 확산 방지대책을 시민·사업자와 함께 즐기면서 추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또한 ‘아트마스크’를 즐기는 모습을 SNS에 올림으로써 조금이나마 가볍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염 확산 방지에 협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정책 평가

- 교토市の 아트마스크 캠페인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와 함께 교토의 명소나 특산품, 전통산업 등을 알림으로써 교토를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

<https://www.city.kyoto.lg.jp/gyozai/page/0000274464.html>

<https://www.city.kyoto.lg.jp/bunshi/page/0000274569.html>

<https://www.city.kyoto.lg.jp/sankan/page/0000273335.html>

‘코로나19’ 치료병상 정보 실시간 공개 및 진단검사 접근성 제고

인도 델리 NCT¹⁾ / 사회·복지

인도 델리 NCT 정부는 ‘델리 코로나’ 앱을 보급하여 지역 내 주요 병원의 치료병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명성과 신뢰도를 강화. 또 민간 의료기관의 ‘코로나19’ 검사비용을 반값으로 낮추고, 국제선 항공 출발 승객 대상으로도 검사서비스를 제공하여 진단검사 접근성을 제고

배경

-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효율성 강화 및 검사체계 개선을 위한 의료시스템 확충이 요구
 - 현재 지역 내 주요 병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자 전용 긴급치료병상을 별도로 확보하였으며, 일반진료에 대한 의료서비스도 차질 없이 제공 중
 - 일부 국가와의 협상을 통해 국제선 정기항공편 재개가 확대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의 프로세스 간소화 역시 요구되는 상황
- 코로나19 발생 초기 의료기관 병상 정보 비공개에 따른 업무 비효율성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확진자 수 급증에 대비한 투명한 정보공개 요구가 증대
 - 올해 10월 기준 지역 내 일일 확진자 수는 약 5천 명 수준에 도달한데다가 11월 힌두교 명절을 계기로 급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 대비가 필요

주요 내용

- 델리 NCT 정부는 지역 단위 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인 델리 코로나(Delhi Corona)를 개발하여 지역 내 치료병상 등의 실시간 정보를 하반기부터 제공 중
 - 코로나19 확산 초기의 혼란을 교훈 삼아 보다 명확한 정보창구 개선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주민들이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PC를 활용하여 이용 가능
 - 특히 지역 내 주요 병원을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으로 분류하고 산소호흡기를 보유한 집중치료병상, 코로나19와 관련되거나 무관한 일반병상 등으로 구분하여 총 병상 수와 점유 병상 수 및 사용 가능 병상 수 현황과 점유율을 병원별로 제공
 - 병원별로 주기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해 제공하고 필요시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1) 델리 NCT(National Capital Territory of Delhi)는 올드델리(Old Delhi)와 뉴델리(New Delhi)를 합친 델리 수도직할지역. 뉴델리시가 인도의 수도

- 병원 연락처도 애플리케이션과 연결하여 편의성을 강화
 - 이외에도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 현황, 지방정부 정책동향을 소개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보호소 또는 급식소 정보도 부가적으로 제공
- 민간 의료기관의 코로나19 검사비용을 기존 4,800루피(약 7만 3천 원)에서 반값인 2,400루피(약 3만 7천 원)로 낮추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민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코로나19 진단검사의 접근성을 제고
 - 공공의료시설에서의 검사는 무료인 반면,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에 간편하게 검사 받을 수 있는 민간 의료기관에서는 검사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
- 주요 방역대상이었던 기존 국제 항공편 입국 승객 이외에도 도착 국가에서 음성 판정 증명서를 요구하는 출국 승객을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 시스템을 10월 중 국제공항에 구축하여 검사 후 바로 출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 연중무휴 하루 24시간 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2,400루피(약 3만 7천 원)의 비용을 청구
 - 진단검사 및 음성 판정 증명서를 발급하는 데 6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용 승객에게 출국 8시간 전까지 공항에 도착할 것을 권고

정책 평가

- 코로나19 확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병원별 치료병상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함으로써 확진자 수 급증 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
 - 특히 긴급치료병상은 코로나19 환자의 치명률을 낮추는 필수시설인 만큼 증상별 치료병상으로 구분한 점유율을 제공하여 지역 의료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고, 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혼란을 줄이는 데 기여
 - 이외에도 지방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정보제공 창구로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권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진단검사비용을 낮춰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공항 입출국장엔 검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공항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
 - 기존 입국 편 승객에 집중했던 코로나19 검사서비스를 출국 편 이용 승객에게도 제공함에 따라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의 출국절차 간소화에 도움을 줌



[그림 1] 코로나19 치료병상 정보제공의 예

| Hospital | Last Updated | Total | Vacant |
|---|---------------------|-------|--------|
| Delhi Govt Lok Nayak Hospital | 9:20 AM, October 30 | 200 | 14 |
| Delhi Govt Rajeev Gandhi Super Speciality Hospital | 7:13 AM, October 30 | 200 | 197 |
| Delhi Govt GTB Hospital | 7:33 AM, October 30 | 128 | 26 |
| Central Govt Safdarjung Hospital | 8:53 AM, October 30 | 54 | 6 |
| Central Govt | 8:15 AM, October | 50 | 32 |

[그림 2] 병원별 치료병상 정보제공의 예

<https://www.hindustantimes.com/india-news/rt-pcr-tests-at-a-high-positivity-rate-crosses-6-in-delhi/story-kznC2PUiRzipMJt8Zsoq9M.html>

<https://www.ndtv.com/india-news/delhi-airport-starts-covid-19-testing-for-international-departures-2315250>

<https://www.thehindu.com/news/cities/Delhi/kejriwal-launches-delhi-corona-app-for-real-time-information-on-availability-of-hospital-beds/article31729239.ece>

<https://www.timesofindia.indiatimes.com/city/delhi/rt-pcr-testing-cost-may-be-lowered-soon/articleshow/78818432.cms>

<https://www.timesofindia.indiatimes.com/travel/travel-news/delhi-airport-to-start-covid-19-testing-for-international-departures-soon/as78892846.cms>

박원빈 통신원, samc21@naver.com

공공진료소 확대 등 동물복지시스템 구축

인도 델리 NCT¹⁾ / 사회·복지

인도 델리 NCT 정부는 지역 내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동물복지시스템을 구축해 시행 중. 24시간 운영하는 공공진료소와 구급차 보급, 개체수 조절 프로그램, 동물보호 캠페인 등을 추진하여 동물을 보호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고자 함

배경

- 인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중산층 확대로 반려동물 증가와 델리 NCT 지역의 도시화로 인한 길거리 동물의 지속적 확산에 따라 동물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증대
 - 특히 도시 곳곳에 개, 소, 원숭이 등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이 살고 있어 지역주민의 불편과 질병 감염의 위험성 증가에 따라 보다 새로운 접근법이 요구
- 힌두교 등 종교의 영향으로 동물 등 생명존중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성숙한 편이지만, 동물복지시스템 부재와 정책적 접근 부족에 따른 비효율성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

주요 내용

- 델리 NCT 정부는 2018년에 동물복지종합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시행 중
 - ① 동물 공공진료소 및 보호소를 설치하여 진료, 수술, 약 처방, 보호 등이 가능한 의료 기능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존 시설도 개선하여 동물 진료시스템 혁신
 - 위급한 동물 대상 24시간 상시 진료소를 구역별로 설치하고, 간단한 진료 또는 수술 등이 가능한 구급차를 구역별로 2~3대 배치하여 동물구조체계를 개선
 - 동물 전용 긴급·상담 전화번호를 개설하여 동물들에게 신속한 의로서비스를 제공
 - 지역에 최소 5개의 공공 동물병원을 설립하여 가축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동물을 진료하도록 함과 동시에 민간 동물병원의 서비스품질 개선도 유도
 - 버려진 동물을 위한 보호소를 구역별로 2~3개소 설치하고, 자연재난 등이 발생하여 위험에 노출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

1) 델리 NCT(National Capital Territory of Delhi)는 올드델리(Old Delhi)와 뉴델리(New Delhi)를 합친 델리 수도직할지역. 뉴델리시가 인도의 수도

- ② 축산농가 지원, 개체수 조절 등을 지원하여 지역 내 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 축산농가의 현대화 작업을 지원하여 위생적인 축산환경 조성
 - 동물 전염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길거리 동물 위생 개선 제도를 마련하고, 광견병 등의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 시행
 - 반려동물 또는 소 등의 가축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 칩 장착 권장
 -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할 경우 위생을 최우선으로 하되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동물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구체화하고 표준화
 - 공공 진료소와 연계하여 무료 콜센터를 통해 불임수술을 제공하는 동물 출산조절 (Animal Birth Control)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개, 원숭이 등 길거리 동물의 개체수 조절
 -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구역 면적에 맞는 적합한 동물 개체수를 도출하여 제시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
- ③ 동물에 대한 연구, 인식 개선 등을 지원하여 동물복지 거버넌스 확립
 - 동물 관련 NGO, 공공기관, 학계 등과 연계하여 동물 관련 지역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동물 연구시스템을 확립
 - 관련 종사자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세미나 등을 통한 재교육도 지속 시행
 - 동물에 대한 대중의 인식 역시 중요하므로, 동물 생명존중 의식 등을 고취하는 동물 보호 캠페인을 TV나 라디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펼침
 -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반려동물 온라인 거래 등을 지양하고 유기동물 입양을 장려하는 분위기 역시 확산 중임

정책 평가

- 동물복지정책 체계화 및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통해 지역 내 동물복지시스템 정착 및 동물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
- 지자체 차원에서 동물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음



[사진 1] 동물 전용 구급차 모습



[사진 2] 24시간 동물 진료소 안내문

<https://india.mongabay.com/2019/01/delhis-first-animal-welfare-policy-focuses-on-health-rehabilitation-and-awareness/>

<https://www.financialexpress.com/lifestyle/science/delhi-likely-to-get-its-first-wild-animal-rescue-centre-by-year-end/2084541/>

<https://www.thehindu.com/news/cities/Delhi/in-a-first-delhi-govt-releases-policy-on-animal-welfare/article25954330.ece>

<https://www.oneindia.com/india/delhi-likely-to-get-its-first-wild-animal-rescue-centre-at-rajokri-3149728.html>

http://www.web.delhi.gov.in/wps/wcm/connect/d946c200483eb26db35eff969f481843/Policy_AH.pdf?MOD=AJPERES&mod=1255445280&CACHEID=d946c200483eb26db35eff969f481843

박원빈 통신원, samc21@naver.com

‘음식 폐기물 줄이기’ 대책 추진

일본 오사카시 / 환경·안전

일본 오사카시는 2019년 5월 제정된 ‘식품 폐기물 줄이기 추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0월을 ‘음식 폐기물 줄이기 월간’으로 정하고 ‘먹다 남기는 것 금지 OSAKA’, ‘푸드 드라이브(식자재 기부 운동)에 대한 협조 요청’, ‘30·10운동으로 잔반(殘飯) 줄이기’와 같은 대책을 추진

배경 및 목적

- 일본은 많은 식료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임에도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생산 및 제조, 판매, 소비의 각 단계에서 버려짐에 따라 대량의 식품 폐기물이 발생
 - 2018년 식료품 자급률은 37%
 - 식료품은 가계소비지출의 4분의 1을 차지
 - 어린이 7명 중 1명이 빈곤 상태로, 심각한 상황에 있음
 - 시·정·촌 및 일부 조합에서 일반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연간 약 2조 엔(약 21조 7,400억 원)을 지출
- 일본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현황
 - 일본에서 버려지는 음식물량은 연간 약 612만 톤
 - 이는 세계 식료품 원조량(연간 약 390만 톤)의 약 1.6배
 - 일본에서 버려지는 연간 음식물량의 절반 수준인 약 328만 톤이 사업체에서 배출
 - 남아서 버려지는 음식물을 재이용하는 비율은 식품 제조업보다 식품 유통업 등 소비자에게 가까워질수록 낮아짐
 - 식품 도·소매업, 외식업에서는 남은 음식물을 재이용하기보다 배출하는 비율이 높음
- 이를 배경으로 일본 정부는 2019년 5월 ‘식품 폐기물 줄이기 추진에 관한 법률’(食品ロスの削減の推進に関する法律)을 제정
 - 이 법에 따라 2020년 3월 ‘식품 폐기물 줄이기 추진에 관한 기본 방침’(食品ロスの削減の推進に関する基本的な方針)을 수립
- 오사카시는 이 법에 따라 지난 10월을 ‘음식 폐기물 줄이기 월간’, 10월 30일을 ‘음식 폐기물 줄이기 날’로 정함

주요 내용

- ‘먹다 남기는 것 금지 OSAKA(食べ残しあかんでOSAKA)’ 대책 추진
 - 아직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버리는 ‘음식물 낭비’ 등 식품 폐기물을 줄이고자 소량 메뉴 개발이나 잔반(殘飯) 줄이기를 하는 음식점 등을 ‘먹다 남기는 것 금지 OSAKA’ 업체로 등록하고 市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개
 - 등록 대상은 ① 소량 메뉴 도입이나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식량 조절, ② 음식을 다 먹은 손님에게 혜택(할인권, 음료권 등) 제공, ③ 앞의 ①, ② 외에 잔반 줄이기 홍보 활동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市 소재 음식점과 숙박시설



[그림 1] ‘먹다 남기는 것 금지 OSAKA’ 스티커

- ‘푸드 드라이브’에 대한 협조 요청
 - 푸드 드라이브는 가정에 있는 식자재(쌀, 통조림, 가공식품, 조미료 등)를 모아 이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지원단체나 개인, 어린이에게 기부하는 활동
 - 유통기한이 2개월 이상 남은 상온 보관 가능 식품이 기부대상
 - 주식회사 파나소닉의 오사카센터에서 푸드 드라이브 코너를 상시 운영하고 있음
- ‘30·10운동으로 잔반 줄이기’ 대책 추진
 - 회식이나 연회에서 발생하는 잔반량이 상당히 많음
 - 30·10운동은 회식이나 연회 시 ‘처음 30분, 마지막 10분 동안은 요리를 즐기므로써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고 하는 운동
- ‘래핑 열차¹⁾ SDGs²⁾ 기차 2020’ 사업에 市의 SDGs 포스터 제출·게시

1) 홍보용 포스터나 사진, 그림 따위를 붙이고 일정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를 말함

2)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약칭으로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말함. 지속가능 개발 목표는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 등)와 지구환경 문제(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사회 문제(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를 2030년까지 17가지 주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나누어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

- 2020년 9월 8일부터 한큐 한신 홀딩스와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시민단체가 협력해 SDGs 인지도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 '래핑 열차 「SDGs 기차 2020」'에 市가 작성한 SDGs 포스터를 제출



[그림 2] 오사카市の SDGs 포스터

<https://www.city.osaka.lg.jp/kankyo/page/0000514966.html>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consumer_policy/information/food_loss/promote/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consumer_policy/information/food_loss/promote/pdf/promote_200331_0001.pdf

권용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세계도시동향 제488호

발행인 서왕진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0년 11월 2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개발과 도시 관련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으로부터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실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trees29@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ISSN 2586-5102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